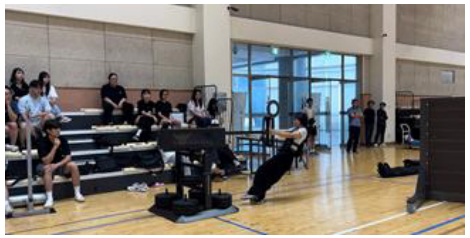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순환식 체력시험장비 설치

박대항 기자 | 승인 2023.09.12 13:14 | 14면

경찰청 인증 순환식 체력장비 도입
체력시험 지원... 올 합격자 4명 배출



공직진출 특성화 대학이자 등록금이 무상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경찰행정학과가 경찰청인증의 순환식 체력장비를 새로이 도입, 설치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사진=충남도립대 제공

[청양]공직진출 특성화 대학이자 등록금이 무상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경찰행정학과가 경찰청 인증의 순환식 체력장비를 새로이 도입, 설치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청이 채용시험에서의 체력시험방식을 종래의 종목식 체력검사 방식에서 직무적합성이 높으며 성별 구분 없이 일원화된 기준에 따른 체력측정을 하고자 순환식 체력검사방식으로 변경해 현재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시험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공채시험에는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변경된 순환식 체력검사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접할 수 없는 고가의 특수한 장비들을 이용해 연습할 수밖에 없는데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총장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경찰청이 인증한 순환식 체력장비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학과 학생들의 평소 체력증진 연습 및 필기시험 합격생들의 체력시험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학 및 학과의 이러한 적극적 지원노력에 힘입어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올해 상반기 경찰채용시험에서 6명의 필기합격자 중 4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해 이들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난 8월의 하반기 시험에서도 9명의 필기합격자를 배출(현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진행 중)하는 등 충남권의 대표적인 경찰공무원 양성학과로서 자리하고 있다.

2007년 학과 창설 이래 경찰공무원 양성에 주력해오고 있으며 이번의 새로운 체력측정기구의 도입을 주도한 경찰행정학과 곽영길 교수는 "변화된 시험제도에 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고, 경찰행정학과 장비도입에 우선 배려해주신 총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대항 기자 pdh4112@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